

회전근 개 파열의 수술 후 결과와 예후 인자의 분석

Postoperative outcome and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in Rotator cuff tear

이 광 원, 박 건 영, 박 재 국, 김 병 성, 김 하 용, 최 원 식
울지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

회전근 개 파열은 성인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견관절 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으며,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한 생역학적 이해와 수술적 술식의 발전으로의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이에 저자들은 회전근 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들의 임상적 결과와 최종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을 알아보려고 한다.

연구대상 및 방법

1996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서 회전근 개 완전 파열의 진단하에 관절경을 이용한 mini-open technique으로 수술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42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32개월(12-67개월)이었다. 동통은 Visual Analogue Scale(VAS)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, 결과는 UCLA 평가 지수를 수술 전과 최종 추시 시에 측정하였으며, 예후 인자로는 나이, 증상 이환 기간, 술 전 관절 운동 범위, 파열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, 통계학적 방법으로는 Student t-test를 사용하여 결과에 따른 유의성 유무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.

결과

환자의 연령은 평균 50.7세(17-67세)이었으며, 이 중 남자가 30명, 여자가 12명이었다. 수상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18례, 실족 6례, 낙상 2례, 스포츠 손상 3례, 기타 13례이었다. 파열 크기에 따른 분류로는 중범위 파열(1-3cm) 24 명, 대범위 파열(3-5cm) 14명, 광범위 파열(>5cm) 4명이었다.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극상근 단독 파열 27명, 극상근과 견갑하근이 동시에 침범된 경우가 3

명, 극상근과 극하근 파열이 8명, 극상근, 극하근, 건갑하근이 파열된 경우가 4명이었다.

술 전 동통과 UCLA 평가 지수는 6.7, 16.3점이었으나 술 후 동통(VAS)과 UCLA 점수는 2.3, 31.1점으로 각각 유의하게 호전되었다.($p < 0.05$) 술 후 평균 운동 범위는 술 전에 비해 굴곡 62도, 외전 62.6도, 내전 5.2도, 외회전 8.8도, 내회전은 L4에서 L2로 향상되었다. 전체적으로 UCLA 점수 분류상 술 후 우수 4예, 양호 36예, 불량 2예로 조사되었다. 술 전 관절 운동범위와 파열 크기는 최종 추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술 당시 환자의 나이나 동통의 정도, 파열 위치, 증상의 이환 기간 등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

결론

회전근 개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술 전 관절 운동범위와 파열 크기는 예후에 영향을 미치며, 수술적 결과는 환자 자신의 만족도와 기능 평가에 있어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사료된다.